‘문서포교’에 대한 단상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2달 전 〈법구경〉 사상이 담긴 책을 출간했는데, 〈법구경 마음공부〉이다. 〈법구경〉을 읽다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뵙고 법문 듣는 느낌이다. 게다가 당시 승가의 상황이나 스님들의 마음가짐, 수행에 대한 열정, 고대 인도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필자에게 이 경전은 애정이 깊다. 출간 이후 책과 관련해 여러 일을 겪으면서 문서포교에 사유가 깊어졌다.

대승불교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은 ‘탑(Stupa)’이다. 이 탑을 중심으로 진보된 사고를 갖는 출가보살과 재가 보살이 대승불교 운동을 펼쳤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 또한 점차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즉 탑 내부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지 않아도 경전을 모셔놓으면,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것과 똑같다는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경전에 대한 숭배의식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서 〈금강경〉 〈법화경〉 〈유마경〉 등에 수지·독·송·해설·사경 5종 수행을 강조하면서 어떤 수행보다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곧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곧 법신인 경전이므로 경전을 숭배함은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솔직히 필자는 대승불교 경전에 마음이 꽂혀 있다. 상불경 보살이 다른 정진은 하지 않고, 오롯이 사부대중에게 예경하는 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듯이 필자는 수십 년간 여러 책을 출간하며, 특히 경전에 집중하였다. 물론 그 만큼의 글쓰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요, 공부가 함께 동행돼야 하는 법이다. 사찰을 운영하지 않아도 문서포교를 통해 승려로서 ‘밥값’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입지 탄탄한 출판사와 출판 작업
견문 넓히는 계기…마케팅 돋보여
불교 교리 현대화 필요성 체감해

필자가 처음으로 출판했을 때가 2002년으로 기억된다. 이후 20여년 간 불교계 출판사에서 여러 분야의 책을 출간했다. 그러다 일반출판사로서는 입지가 있는 출판사로부터 출판 의뢰를 받았다. 출판사는 ‘인문학 에세이’라는 주제만을 던져주면서 불교의 깊이도 있으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기를 원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글 서두에 언급한 ‘법구경 마음공부’이다. 하여튼 필자가 이번 책을 통해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출판사와 필자 사이를 오가며 원고 수정하는데, 출판사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편집인들의 ‘꼰’다운 짜임새 있는 구성이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도 일간 신문 광고, KBS라디오에 출연 섭외, 도서 유튜버와의 촬영 등 마케팅 분야에서 스케일이 컸다. 솔직히 이전에 책을 출판했을 때와 다른 경험이 나의 시야를 넓혀주는 계기였다.

둘째, 불자가 아닌 유튜버와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해야 불안하지 않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진짜 윤회는 있는가’ 등이었다. ‘어떻게 기도·수행하는가’ 등은 이들의 관심 밖이었다. 진정한 포교는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도 부처님 말씀을 전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수행도 좋지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감동적인 불교 진리여야 한다.

셋째, 경전 사상이나 불교 교리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필자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부처님 재세시의 시대적인 사상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노출할 수 없었다.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릇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데 포커스를 두었다.

불교 관련 책 한권이 출판됨은 부처님이 한분 탄생하는 것과 같다. 전문성을 띤 수행 책도 필요하지만, 불자가 아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이 출판됨은 포교요, 새로운 부처님이 한분 탄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극우 약진과 연기론적 정의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부족주의의 회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족주의 회귀의 현상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이 함께 겪고 있는 기후 환경 문제, 다문화 정책, 이민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큰 장애로 등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족주의의 회귀는 ‘다문화 사회’의 실패와 함께 등장한 용어이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에 시작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언어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국가와 민족의 단위를 뛰어넘는 ‘지구촌’의 착한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 편입된 이민자들은 다문화적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았고, 동시에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집단 문화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부족주의의 회귀라 불렸다. 그런데 최근에 서구사회에서 등장한 부족주의는 주류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을 강조하며 등장한 강자의 이념이다. 폐쇄적 민족주의의 재등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유럽의회서 극우 정당들 대거 약진
전 세계 ‘부족주의 회귀’ 현상 뚜렷
연기론적 정의 바탕한 공동체 필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RN)이 승리하자 자국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축구스타인 흑백 혼혈의 음바페는 “투표를 통해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세력에 맞서야 한다”며 “모든 프랑스 청년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투표를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프랑스는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사회의 모델로 칭송되어 왔다. 그런 프랑스에서 새로운 부족주의의 회귀 현상이 횡행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근현대사에서 폐쇄적 민족주의와 독선적 이념의 갈등으로 인류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 왔던가.

새삼 붓다가 펼친 ‘연기법의 지혜’가 다가온다. 연기법의 핵심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의존적 상호 발생’의 관계라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윤리(Mutual Ethics)가 생성된다. 상호윤리는 함께 만들어 가는 윤리로써 자비 실천의 디딤돌이다. 연기법의 지혜가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 ‘연기의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연기의 정의론’은 자비 공동체 구현의 핵심 가치이다.

틱낫한 스님은 앞으로 오실 붓다는 ‘공동체’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구조는 한 사람의 붓다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불교가 나아갈 길에 많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미움과 구별의 집단 광기가 팽배하고 있다. 이 지구별에 연기론적 정의에 바탕한 자비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연꽃은 진흙탕 물에서 핀다고 하는데.

社 說

교육·조직화된 신도 양성 이끌어야

탈종교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5월 13일~17일 나흘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5%가 ‘최근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떠오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66.8%와 30대 응답자 70.4%가 불교의 인기가 ‘체감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 역시 불교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 62%가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로 불교를 꼽았다.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불교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변화’가 있다. 그 중심에는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세대가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던 것은 지난 4월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다. 박람회 개막 당일부터 인스타그램·X(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이 점차 증가했으며, 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도 전년대비 30배 증가하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넥스트 스텝’이다. 불교에 대한 낮아진 허들을 넘어 어떻게 교단과 사찰로 유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개종이 어려워진 사회다. 그렇기에 비종교인 62%가 “불교를 믿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 기회이다. 새로운 신도의 유입과 이를 유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힘한 불교’에 취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송현광장은 ‘시민의 광장’이다

태고종 총무원이 송현공원 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했다고 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6월 19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 가장 많이 탄압을 당한 것이 현재의 태고종”이라며 “송현공원 내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건립 추진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화유시로 조계종이 탄생했다고 하지만, 그 유시로 인해 한국불교계는 양분돼 발전 아닌 갈등에 오랜 시간 역량을 쏟을 수 밖에 없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임에도 개인 의지를 정책에 반영시켰다. 정화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불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계기를 박탈한 것이 이승만 정권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태고종이 맹목적으로 이승만기념관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태고종 총본산 앞에 있는 송현광장에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상진 스님은 “다른 곳에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왜 송현광장을 고집하려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종로의 얼굴을 바꾼 송현광장을 오롯이 시민의 곁에 있도록 해야 한다. 광장은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우상화하는 장소는 더더욱 안된다. 송현광장은 ‘시민의 광장’이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6월 26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6월 26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6월 26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